

‘모던 걸’의 공포와 ‘동지’의 수사학 : 『인간문제』에 나타난 강경애 사회주의 여성의식 재고(再考)*

송인화**

목차

1. 프롤레타리아 계급성과 인텔리겐차 여성의 자의식
2. ‘모던 걸’의 공포와 가사일의 재조환
3. 미완의 ‘여성/동지’와 ‘오빠’의 서사
4. ‘과잉’ 혹은 ‘결핍’으로 남은 여성

〈국문초록〉

강경애는 식민지 시기 최고의 사회주의 여성작가로 인정받았고 여성의식 역시 이념적 관점에서 접근되었다. 여성해방의식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거나 혹은 사회주의 이념에 구조화된 남성중심성을 수용하였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은 평가의 방향은 다르지만, 사회주의라는 단일 이념으로 여성의식을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를 단일한 내용을 갖는 하나의 이념으로 상징하고 그것의 약점과 미덕을 강경애 여성의식의 성패와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강경애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식은 이음새 없는 단일한 이념으로서의 사회주의 여성의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 안에 모순된 이질성을 구조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시각과 근대적 계급해방의 이념

* 이 글은 하와이 대학(USA)에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주제: “Intersectionality of History, Socio-political Consciousness, and Gender: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Women Writers and Their Works”, 2019. 2.13~2.15)에서 발표되었음.

이 논문은 2017년도 한세대학교 교내연구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이 교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도 다른 여성주의자들과의 낙차도 발견된다. 이 글은 그간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이러한 이질성과 차이를 당대 신여성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방탕과 허영, 그리고 빈껍데기로 지식인 여성을 비하했던 모던걸 담론이 강경애 소설에 가한 억압과 모순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성의식을 다시 점검하였다. ‘모던 걸’의 공포가 강경애에게 내면화되면서 사회주의 여성의식 안에 남성중심적 시각을 모순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여성활동가들과도 다른 여성의식의 낙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여성 담론이 자유주의 여성에게만 아니라 사회주의 여성의식에도 모순과 갈등을 야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문핵심어 : 강경애, 사회주의, 지식인여성, ‘모던걸’, ‘신여성’, 공포, 가부장주의, 이질성

1. 프롤레타리아 계급성과 인텔리겐차 여성의 자의식

1931년 「과금」을 『조선일보』에 독자 투고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한 강경애는 당대를 대표하는 사회주의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여성작가로서는 드물게 작품활동 시기부터 ‘남성적 작가’로 호의적 평가를 받았으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80년대 이후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여성작가가 아닌 작가’, ‘일제 강점기 최고의 리얼리즘 소설 작가’로 평가 받았다. 간도를 배경으로 한 간고한 체험과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대한 저항을 뚜렷하게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적실하게 작품화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강경애는 30년대 프로 문단에서 제기된 예술운동의 불세비키화를 적극 수용하여 계급해방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적 과제로 명시하고 프롤레타리아를 운동 주체로 하는 갈등과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강경애 소설에는 자산가 계급의 착취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하층민의 비참한 현실이 치열하게 나타나 있

고, 자산가와 하층민의 계급과의 갈등이 주요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자와의 계급갈등 못지 않게 강경애 소설에서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 ‘지식인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다. 강경애 소설에서 지식인은 계몽의 주체도, 혁명의 지도자도 아닌, 계급성이 심문되고 실천력이 회의되는 인물로 나타난다. 지식인은 비록 그가 혹은 그녀가 사회주의 이론을 신봉하는 ‘주의자’라 할지라도 경제적 기초가 다른 특권층이라는 한계로 인해 하층민과 다른, 화해할 수 없는 세계에 속해 있다. 강경애 소설에서 지식인과의 갈등은 중심 사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식인의 내면 갈등과 자의식을 통해 혹은 하층민과 지식인의 차이를 드러내는 공교한 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시된다. 최초작인 『파금』은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부정의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역시 초기작품으로 자전적 작품인 『그 여자』도 지식인 여성의 허위성을 비판하고 있다. 『인간문제』에서도 지식인과 하층민 사이의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주요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기 작품인 『어둠』, 『산남』, 『동정』 등에서도 지식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있어 강경애 소설에서 지식인의 자의식과 정체성 문제는 유산자와의 갈등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주요테마이다.

지식인의 자의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강경애가 그토록 강조했던 계급적 정체성과 갈등의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으로서 강경애는 자신의 정체성과 한계를 끊임없이 자각해야 했고 인텔리겐차 여성으로서의 자의식과 하층민과의 거리 사이에서 고뇌하며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자각적 긴장 속에서 세계와 대상을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계급적 정체성을 강조할수록 그와 동시에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인식이 부각되고 자기 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억압적 상황에 놓이는, 그러한 인식의 위기와 정체성의 곤경 속에서 작품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인식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인텔리겐차 여성의 자의식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사회주의 소설에서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자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강경애 소설에서 유독 그것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성 지식인에게 남성보다 더 치열한 자기 심문의 과정을 요구했던 데서 기인한다. 사회주의 남성에게는 소시민성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자질에 국한되어 정체성이 심문되지만 지식인 여성의 경우 정치성에 그치지 않고 상황이 보다 복합적이다. 교육받은 여성은 특권적 계층으로 분류되어 사치, 방탕, 애욕의 아이콘으로 표상되었고 ‘모던 걸’ 담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소비되었다. 소위 신여성으로 지목되는 지식인 여성은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애욕적 담론의 대상으로 비하되고¹⁾ 조롱되었다. 남성 필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식 담론장에서 지식인 여성은 그들의 지식이나 행위보다 방탕한 육체로 시각화되었던 것으로 사회주의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콜론타이즘을 주장했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자들마저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눈치보기’를 했고 그래서 자유주의 여성해방론만큼 공격받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내세운 성해방의 진보적 의미는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자유주의 여성해방과 유사한 특권층 여류인사의 방종 정도로 취급되었다.²⁾ 낭만적 사랑에 대한 대안으로 그녀들이 내세운 연애와 결혼의 분리에 내재된 진보적 의미는 무시된 채 사회주의 진영에서도 ‘붉은 연애’를 내세우는 ‘맑스 걸’ 정도로 내쳐진 것이다.³⁾ 지식인 여성들을 통해 발화된, 계급성으로 수렴되지 않은 여성의 성별 차이와 억압에 대한 목소리는 신여성 혹은 ‘모던걸’의 육체 표상에 묻혀 간과

-
- 1) 2,30년대 신여성 담론을 탐구한 김수진은 모던걸이 수입되어 소개될 때는 외국의 고유명사로 여겨졌지만, 점차 신여성의 이면을 나타내는 일반명사로 사용되면서 신여성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한다. 모던 걸은 신여성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쁜 신여성’의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성적 방종, ‘허영’과 ‘껍데기’를 표현하는, 경멸과 조소를 표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좌우의 이념적 차이를 막론하고 교육받은 여성으로서의 신여성은 쉽게 ‘모던걸’로 조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수진, 『모던걸, 모방의 병리적 주체』,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 2) 김경일, 『사회주의 여성의 성과 사랑』,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177-227쪽.
 - 3) 콜론타이의 이론은 비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통속화된 형태로 선택되어 수용-해석되고 현실에 적용되었다.(위의 책, 189쪽)

되거나 무시되었고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던 구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계급성의 실현을 구여성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 결국 지식인 여성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사회적 의미로만 국한되지 않았고 남성중심적 시선에 의해 조정되면서 복합적 의미로 젠더화되었다.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은 이러한 당대 담론의 영향 하에 조성됐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신여성 담론장을 통해 형성된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이 여성의식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강경애의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사실주의 소설의 최고봉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주의 여성해방 사상을 구현한 작품으로 고평되었던 『인간문제』가 어떻게 당대 신여성 담론을 통과하면서 사회주의 여성의식을 형성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여성의식의 내부의 모순과 이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인물의 유형화와 인물의 관계 형성에 주목하며 특히 ‘동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의 상징적 구현체이자 평등의 이상을 표명하는 ‘동지’가 성별화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결국 강경애 사회주의 여성의식의 중층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강경애 소설의 여성의식에 대한 연구는 평가를 달리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강경애 소설이 사회주의 전위의 시각에서 하층민 여성의 체험과 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즉 성과 민족, 그리고 계급이라는 다중적 모순에 처한 여성의 비참한 현실을 체험에 기초해 진실되게 보여주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경애 소설을 식민지시기 최고의 리얼리즘 작품으로 평가한 이상경의 연구가 이를 대표하며⁴⁾ 기본적인 논지는 동일하지만 간도라는 이산의 체험을 강조한 김

4) 이상경의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대표한다. (이상경, 『강경애 -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이외에도 송지현,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28호, 한국언어문화회, 1990; 송명희, 『강경애의 ‘인간문제’에 대한 여성비평적 연구』, 『비평문학』 제11호, 한국비평문학회, 1997; 김민

양선의 연구나⁵⁾, 남성 사회주의 작가와는 다른 여성성의 미학적 특징을 분석한 김복순의 연구⁶⁾, 그리고 사적 공간을 계급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확장시킨 배상미의 논의는⁷⁾ 이러한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이들 연구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사실주의 방법론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강경애 소설의 여성의식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해명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강경애 소설에 나타난 전통적 여성상과 가사일에 주목하여 그의 소설이 사회주의의 남성중심적인 시각에 함몰되었거나 봉건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⁸⁾ 강경애 소설이 여성보다는 계급을 우위에 둠으로써 사회주의의 남성중심적 성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는 강경애 소설의 여성해방적 성과를 전체적으로 부정한다.

후자의 연구가 이념적 동조보다는 여성주의적 해석의 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시각과 상대적으로 가깝기는 하지만 그 역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자체에 대한 선형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고 여성 문제에 대한 강경애의 고민과 탐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평가의 방향은 다르지만 양자가 사회주의라

정,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지배담론의 영향과 여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 제85호, 한국어문학회, 2004; 서정자,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소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7호, 한국여성학회, 1991; 임선애, 『여성작가와 사회주의-강경애의 경우』, 『현대사상』 제5호,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09.

- 5) 김양선, 『강경애 후기 소설과 체험의 윤리학: 이산과 모성 체험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196-220쪽.
- 6)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312-343쪽.
- 7) 배상미, 『식민지시기 무산계급 여성들의 사적영역과 사회변혁-강경애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4호, 상허학회, 2005, 355-400쪽.
- 8)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 논문을 참조. 박혜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제23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250-276쪽; 정미숙, 『차용된 남성 시점과 여성 발견의 한계-강경애 단편소설의 시점』, 『문창어문논집』 제23호, 문창어문학회, 1999, 337-360쪽.

는 이념의 틀로 강경애 소설의 여성의식의 성과와 한계를 해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글은 『인간문제』를 중심으로 강경애 소설의 여성의식을 탐구함에 있어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념을 중심으로 접근되었던 기존 연구를 당대 신여성 담론과의 관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하나의 이념으로 수렴되지 않는 강경애 여성의식의 내부 즉, 그 안의 모순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모던 걸’의 공포와 가사일의 재소환

『인간문제』는 농촌과 도시를 배경으로 여성의 억압적 현실과 계급적 자각을 그리고 있다. 농민의 딸로 태어난 선비가 부모를 잃고 지주에게 곽탈을 당한 뒤 인천의 방적공장 노동자로 취업하여 계급적 자각에 이르지만 폐병에 걸려 죽는 비극적 일생을 통해 하층민의 계급적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작품은 계급문제 해결을 식민지 현실은 물론 여성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고 인물도 이에 따라 유형화되어 있다. 지주의 딸인 옥점과 노동자인 선비의 대립적 구도로 여성인물이 설정되어 있는데 선비가 전통적 질서에 순응하고 살던 구여성이라면, 옥점은 서울의 학당에 다니는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다.

작품은 선비를 빼어난 미모와 가사노동에 능숙한 부지런함, 그리고 순박하고 착한 여성으로 제시하는 반면 옥점은 연애에만 목 매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여인으로 그리고 있다. 작품은 여성인물을 통해 계급 갈등을 노출시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옥점과 선비의 차이는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양자의 차이는 그보다 더 신여성과 구여성 사이의 대립을 통해 제시된다. 옥점은 서울의 ‘학당’에 다니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그녀가 받은 고등교육이나 문화적 취향은 내용 없는 겉치레, 모양만 번지르한 화려한 겉포장 정도로만 간주된다. 지식인의 자질은 어디에도 없고 사치, 방탕, 그리고 육체적 이미지를

통해 애욕의 화신으로 나타난다. 그녀는 팜므 파탈의 섹슈얼리티로 압축되는데 짙은 향수 냄새, 포동포동한 살, 크림이 섞인 살내라는 감각적 기표를 통해 성애 가득한 분방한 여성의 몸으로 시각화된다.

크림내를 섞은 젊은 여자의 강한 살내가 후끈 끼친다. 그는 이때껏 옥점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충동을 받았다.(92쪽)⁹⁾

그는 슬그머니 손을 놓고 조금 물러앉으렸으나 속에서 울컥 내밀치는 어떤 불길은 옥점의 잠옥 한 겹을 격하여 있는 포동포동한 살덩이를 불사르고도 남을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꼭 감았다.(93쪽)

옥점은 머리를 매만져주는 신철의 손을 끌어다가 꼭 깨물었다. 그리고 진저리를 치며 그의 허끝으로 손을 빨았다. 신철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빼었다.(94쪽)

흔들리는 살덩이와 입술로 시각화된 옥점은 정신과 대립된 육체를 포상하고, 그것은 윤리적 타락을 의미한다. 옥점의 육체 이미지는 ‘거친 손마디’, ‘박꽃’, ‘달빛’의 이미지로 제시되는 선비와 대비되어 타락과 방탕의 의미를 극적으로 부각시킨다. 그녀는 사회주의자 신철이 말하듯 ‘일시적으로나 데리고나 놀 여자’로, 곧 거리의 탕녀로 비하되고 있다.

이러한 옥점에 대한 묘사는 타락한 유산 계급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의미가 있기는 하다. 아버지 덕호에게 잘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를 사달라고 하는 허례와 사치, 식솔에게는 옷에 넣을 솜도 제대로 주지 않아 추위에 떨게 하면서도 자신이 가져갈 계란의 깔개로 햇شم을 아끼지 않고 넣는 행위 등은 자본주의 계급의 타락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옥점의 육체적 이미지는 단순히 계급적 의미로만 수렴되지 않는다. ‘미국 영화배우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애교가 넘쳐흐르는 눈매!’, ‘길가던 남자라도 단박에 흘릴만한 그의 독특한 표정’ 등으로 나타나는 옥점에 대한 비판은 자본가

9) 강경애, 『인간문제』, 범우, 2005. 이후 작품 인용은 여기에 따른다.

의 탐욕이나 계급 모순이라기보다 육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 억압에 가깝고 당시 ‘모던 걸’ 담론의 여성 비하의 시각과 매우 닮아있다.

신여성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는 비하적 용어로 사용되었던 ‘모던 걸’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여성 자체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고 유산자층의 자식을 포함하여 유녀, 기녀, 나아가 여학생 전체를 지칭하면서 자유주의 진영만이 아니라 콜론타이즘과 연결된 사회주의 여성까지도 그것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세간의 주목과 함께 모던걸 담론이 증폭되면서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모던걸로 지목된 여성은 퇴폐와 자본주의 말기적 증후로 공격받았다.¹⁰⁾ ‘모던 걸’은 사치, 퇴폐와 허영심에 가득 찬 신여성을 조롱하는 용어일 뿐만 아니라, ‘지식을 이는 척하지만 실천하지 않고 걸모양만 흉내 내는 존재’로 간주되면서 지식인 여성의 교육적 성과를 부정하는 공격의 무기로 사용되었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든 부르주아 민족주의든 이념과 상관 없이 지식인 여성은 모던걸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했다. 실천이 없는 사상가, 허영에 들뜬 여성에 대한 비판의 날선 공격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그들과 다르게 증빙하고 인정받아야 하는 수세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모던걸’은 지식인 여성에게 공포로 내면화되고 신여성에 대한 시선은 그것을 통해 제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문제』에서 신여성에 대한 비판은 단지 계급적으로 구성되기보다 이러한 ‘모던 걸’에 대한 공포를 통해 다시 조정되고 억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당’에 다니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 옥점이 계급적 타락과 폭력의 가해자로서만이 아닌, 사치, 방탕,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육체로 재현되는 것은, 지식인 여성인 작가의 공포와 자의식이 개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옥점이 신철에게 보여주는 구애는 신여성의 자율성

10) 김수진, 『‘모던걸’, 모방의 병리적 주체』, 앞의 책, 291-304쪽.

11) 신여성을 ‘껌테기’와 ‘허영’, 그리고 육체를 통해 성애화시키는 것은 30년대 남성작가들의 모더니즘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드러나는데 카페 여급 아내를 그린 이상의 소설과 이태준의 『복덕방』에서 가장 선명한 예를 찾을 수 있다.

과 적극성을 보여주는 행동일 수 있다. 자신이 사랑하고 선택한 신철을 집으로 데리고 와 부모에게 소개시키고 신철의 집에도 찾아가 자신의 뜻을 피력하며 결혼을 추진하는 옥점의 행동은 그 자체로 비난 받을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선비의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행동보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인 신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점은 신여성의 독립성 대신 일방적으로 ‘모던걸’로 비하되고 있다.

동일한 유산 계급이자 지식인 남성인 신철에 대한 비판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문제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경성제대 졸업반으로 옥점의 스승의 아들인 신철은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지식인 남성이다. 그는 첫째에게 계급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인천 노동자들의 파업을 조직하는 등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지식인으로 제시된다. 그가 계급혁명의 주체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소시민적 관념성과 정신적, 육체적 취약함 때문으로 나타난다. 아버지와 싸우면서도 고등문관 시험을 거부하고 개인적 영달 대신 노동자의 동지로서 역할을 다하려 했으나 결국 투옥 후 육체의 허약함과 가족의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전향을 하는 것이다. 그의 문제는 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인 것으로 사치, 방탕, 애욕 등으로 비판되는 옥점과는 확연히 다르다. 교육과 정신의 지식인의 자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시민적 허약함만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작품은 지식인의 이중적 국면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다각적으로 공을 들여 제시하고 있고 그런 만큼 신철의 서사는 작품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고 계급적 기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옥점과는 비판의 내용과 정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옥점에 대한 비판은 계급의 문제나 지식인의 소시민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화된 차별이 개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던걸 담론의 공포를 내면화한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강경애 사회주의 여성해방의식 안에 남성중심적 억압이 교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억압적 시각은 구여성 인물의 묘사에서도 발견된다.

『인간문제』는 선비를 통해 사회주의 여성상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선비

는 빼어난 미모와 순박하고 착한 성품, 그리고 무엇보다 민첩한 가사노동을 통해 긍정적 여성으로 제시된다. 그녀는 ‘박꽃’, ‘달빛’의 이미지로 제시되는 농촌의 순박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학업을 미끼로 자신을 겁탈하려는 덕호의 거짓된 욕망을 눈치 채지 못하는 선량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덕호 집의 가사일을 민첩하게 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순수, 순박, 선량, 부지런함을 통해 하층민 여성인 선비는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특히 작품은 선비의 가사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신철이 선비에게 마음을 주게 된 결정적 원인이 그녀가 빨아가지고 온 ‘흰 빨래’에 있는데 새하얗게 빨아서 깨끗하게 다린 와이셔츠는 순수한 성품과 더불어 선비의 부지런함과 근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질로 강조된다.

그가 이 집에 온 지 거의 두 달이 되어와도 저렇게 먼뽕으로 선비를 대할 뿐이고, 한 번도 한 자리에 앉아 말을 건네보지 못하였다. 그만큼 그는 선비에게 어떤 호기심을 두었다. 그리고 특히 그의 와이셔츠나 혹은 내의 같은 것을 빨아 다려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리 정밀하고 암전스럽게 해오는지 몰랐다. 그때마다 그는 이런 아내를 얻었으면...하는 생각이 옷 갈고리걸피를 뒤질 때마다 부쩍 들곤 하였다.(73-74쪽)

신철이 옥점이 아닌, 선비에게 호감을 갖게 된 이유를 밝히는 장면이다. 암전하게 다려온 빨래, 희게 세탁된 와이셔츠를 통해 신철은 선비를 아내로 맞을 생각을 하게 된다. 부엌과 빨래터, 방에서 이루어지는 바느질, 실타기, 음식하기 등을 통해 선비는 옥점과 다른 개혁의 주체가 될만한 조건을 부여 받는다. 가사공간과 일을 여성의 고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러한 여성주의적 인식은 여성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별의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구여성과 가사 노동의 강조는 강경애 소설의 여성주의적 한계를 지적할 때 자주 거론된다. 선비의 긍정적 자질을 미모와 가사일을 통해 표현하는 작가의 여성주의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남성중심적 시각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성중심적 시각의 개입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부장적 의식의 추수적 수용이라거나 혹은 ‘미처’ 벗어버리지 못한 남성중심적 시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일과 가사공간이 ‘자각적으로’ 선택되고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문제』에서 선비의 가사일은 옥점의 일하지 않는 몸과 손에 대비되어 ‘노동’의 의미로, 즉 하층민 계급성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제시된다. 옥점의 ‘희고 긴 손’과 선비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통해 양자의 계급적 차이를 부각시킨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작품에서 가사일은 사회주의 계급성을 뜻하는 기호이다. 부르주아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가사노동과 모성을 여성억압적인 것으로 축출한 것을 사회주의 이념으로 재점유한 것으로 그들이 비판한 공간과 일을 다시 ‘노동’의 의미로 수용함으로써 그들과 다른 이념적 차이를 보여 주고 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여성주의는 물론 사회주의 여성주의마저 모던결로 조롱받고 비판되는 상황에서 모던결의 게으른 육체와 방탕한 성과는 다른 노동하는 몸을 통해 계급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경애 소설이 전통적 여성상이나 여성성을 ‘추수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거나 가부장적 의식이 전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의지와 의식적 선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성 억압을 해결할 정당한 길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일의 여성 억압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층민 여성은 가사일이 사회주의 이념을 위해 마땅히 실행해야 할 당위적 노동으로, 곧 계급적 실천으로 강조됨으로써 그것의 억압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목화솜을 따서 실을 만들어 옷을 짓는 일, 겨울철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는 것, 각종 음식 만들기와 집안 청소하기, 가축 돌보기 등 계속 이어지는 선비의 가사일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도시로 이주한 후 방적 공장에서 선비의 노동이 자본가의 노동착취와 결부되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제시되는 것과는 달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선비의 가사일에 대해서는 억압적 측면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노동’이라는 의미로 재소환된 가사일은 비판적 재해석이 없이 ‘이념적 당위’로 수용됨으로써 여성 억압의 해방적 의미를 실현하지 못한다. 이념적 의도나 의지와 상관 없이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주장하는 성별화된 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인데 심지어 사회주의 이념의 당위적 명분으로 가사일이 강조됨으로써 여성 억압을 가중시키는 위험마저 보여준다.

가사일을 노동으로 소환하여 전통적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안과 밖의 보수적 경계는 사라지지만 그것의 억압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여성의 ‘선한’ 역할로 간주됨으로써 안팎의 일을 모두 잘 해야 하는 가중된 억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¹²⁾ 『인간문제』에서 여성은 전통적인 여성성을 구성하는 모성과 가사일에 능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남편과 이들을 포함한 노동자 남성들과의 연대를 통해 계급 주체로 각성되는데 이때 여성은 ‘동지’로 호명된다. 동지는 사회주의 계급적 실천의 이상적 관계이자 계급 주체의 정체성을 뜻하는 호명으로 동지를 구성하는 내부를 고찰하는 것은 사회주의 여성의식을 점검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

3. 미완의 ‘여성/동지’와 ‘오빠’의 서사

강경애 소설에서 사회주의 여성의 이상적 형태로 추구되는 것은 ‘동지’이다. 「번뇌」, 「소금」, 「어둠」, 「축구전」, 「채전」을 비롯해 많은 작품에서

12) 배상미는 강경애 소설에서 가사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마찬가지로 계급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선비를 중심으로 농촌에서 형성된 사적영역(빨래터, 부엌 등)이 사회적 위협에 맞서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계급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하며, 계급의식을 갖게 한다고 보는 것으로 흑인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사적영역의 사회변혁적 저항성을 선비의 가사노동 공간에 부여한다. 하지만 ‘노동’을 통한 계급이념으로 재점유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항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것이 여성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해석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배상미, 앞의 글, 355-400쪽.)

동지는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용되는 동지는 관계를 뜻하는 호명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사용된다. 여성과 여성, 남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사이는 물론 부부 사이도 동지적 관계로 나타남으로써 평등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위계화되지 않은 평등한 동료적 관계를 지향한다. 동지는 사회주의 진영의 평등의 이상을 가장 명징하게 표현하는 기호라 할 수 있다.

『인간문제』에서도 동지가 인물 간의 이상적 관계와 정체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신철과 첫째, 간난과 선비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데 신철과 첫째에 비해 간난과 선비의 관계는 결속력과 기능이 매우 미약하다. 또 첫째가 신철과의 동지적 관계를 통해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선비는 미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첫째처럼 여전히 ‘따라가야’ 하는 미완의 형태로 나타난다. 경성제대 졸업반인 신철은 현실적 성공을 속물적이라 생각하고 계급 운동에 투신하는 사회주의 지식인으로 소시민적 관념성과 신체적 허약성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배우지 못하고 우직한 첫째를 계급적 주체로 교육하는 데 성공한다. 둘의 관계는 처음의 사제 관계를 넘어 서로의 관계를 보완하는 동료로, 그리고 나중에는 신철을 대신하여 첫째가 계급 혁명의 주체로 성장함으로써 계몽적 교육자-피교육자의 위계적 관계를 넘어선다. 신철이 부두노동자들의 파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며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한다면 첫째는 노동자들에게 문서를 전달하고 조직을 규합하는 실천적 임무를 한다. 이를 통해 처음에 부랑아처럼 방향 없는 분노만 표출하던 첫째는 신철과 일을 도모하며 믿음직한 개혁의 전사로 거듭난다. 신철이 투옥된 후에도 신철의 몸의 허약함을 걱정하여 차라리 자신이 잡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신철도 변화하는 첫째를 보며 그에게 지도자적 위엄을 느낄 정도로 둘의 관계는 보완적이고 결속이 강하다. 둘의 동지 관계는 인천으로 배경이 바뀐 작품 후반부의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며 사회주의 실천의

이상적 모델로 나타난다.

반면 선비가 맺는 동지적 관계는 그리 단단하지 못하다. 사실상 제대로 된 동지 관계 자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나마 간난과의 관계에서 계급적 결속력을 찾을 수 있다. 고향 친구로 덕호에게 농락당했던 고통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는 가난과 선비는 서울에서 만나지만 그때까지는 함께 기숙하는 동향친구 정도일 뿐이다. 둘 사이가 이념적 내용을 갖게 되는 것은 인천 방직공장에 취업하면서부터인데 작품의 후미에서 간난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장을 빠져나가며 선비에게 급하게 전해준 계급의식 외에 뚜렷한 이념적 결속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선량하고 굽기만 한 선비는 간난과 첫째에게도 우려가 되는 즉, ‘어떻게 하면 선비에게 계급의식을 넣어주어 단단한 계급 주체로 세울까’를 우려하게 만드는 교육의 대상일 뿐이다. 첫째가 계급문제를 해결할 지도적 인물로 성장하는 것과 달리 선비는 말미의 비약적인 각성을 통해 그들과 같은 범주의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만 동지라고 할만한 역할이나 정체성, 그리고 결속을 보여주지 못한다. 작품에서 현실화되는 동지는 남성 연대를 통해서 실현될 뿐 여성 사이나 남성과 여성 연대의 동지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인간문제』만이 아니라 강경애 소설 전체에서 찾아지는 공통점이다. 동지적 연대가 작품에 실제로 형상화되지 않고 여성의 비약적 각성에 의한 선언적 차원으로만 제시되고 있다. 이상경은 이를 작품활동 초기의 관념적 미숙성이나 당위적 이론 제시를 위한 조급함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후기작품인 『어둠』은 물론 전체 작품에 고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초기의 미숙성’으로 그것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¹³⁾ 물론 직관적 인식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여성인식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¹⁴⁾ 그러나 강경애가 다른 여성작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 서사나

13) 이상경, 앞의 책, 15-60쪽.

14) 송인화, 『하층민 여성의 비극과 자기인식의 도정 - 강경애 소설 연구』, 한국여성소설연구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한길사, 1995, 251-290쪽.

묘사력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직관적 인식이 계급의식의 각성에서만 유독 나타난다는 것을 여성성의 인식적 특징으로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여성이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나타나는 이러한 관념성과 의식의 비약은 사회주의 전위 안에서 여성 동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작가가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강경애 소설에서 동지는 그녀의 소설이 추구하는 핵심적 주제인 계급성 실현의 핵심적 요건으로 동지가 되는 것이 곧 계급 주체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여성 동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와 '다른', 그와 대립적 내용으로만 여성상을 설정했을 뿐 봉건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사회주의 여성상을 구체화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여성 동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인간문제』는 선비의 서사라기보다는 첫째의 서사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작품은 선비를 주인공으로 한 성장서사의 외양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작품은 첫째와 신철의 이야기라 할 정도로 그들에게 더 많이 할애돼 있다. 작품은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소시민 지식인의 역할과 한계를 신철을 통해 매우 정교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전향을 다룬 서사로 읽어도 좋을 만큼 다양한 에피소드와 사건으로 그의 전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첫째도 신철을 통해 자신의 계급을 자각하고 사회변혁의 주인공으로 성장한다. 첫째는 특히 의식이 각성된 후 신철을 대신하는 노동자-주체로 설정됨으로써 사회주의 계급이념이 그를 통해 실현된다. 그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파업을 실제적으로 도모하며 실천하는 이야기는 작품의 주제를 실현하는 핵심 서사이다.

반면 선비는 지주에게 유린당하는 순박한 농촌 소녀로, 도시에서는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로 비극적 결말을 맺음으로써 계급적 자각과 성장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선비는 농촌과 도시에서 식민지 시기 하층민 여성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계급모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여성해방의식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작품에서 그녀는 첫째와 같은 동등한 계급성을 실현하는 주인공이기보다 여전히 채워야 할 ‘결핍의 존재’이며, 마지막 장면에서 시체로 첫째 앞에 놓여진 선비의 죽음은 첫째의 각성과 결의를 높이는 도구적 매개일 뿐 진정한 의미의 동지가 되지 못한다. 미완의 기표로 남겨지는 것이다. ‘동료(fellow)’이기보다 ‘따라가야(follow)’ 해야 할 결핍의 존재로서, 여성은 동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부족을 채우거나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남성과 동등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격 혹은 조건으로 교육을 더 받거나 깨달음이 더 필요한 대상인 것이다.

강경애 소설에서 여성들은 아들, 남편, 오빠를 따라가는 인물로 제시된다. 계급적 각성이 이끄는 곳은 이들 남성과 함께 그들이 간 길을 함께 가는 것이다. 『소금』에서 봉염어머니가 자기 현실을 자각하고 믿고 따라야 할 사람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들이며, 『어둠』에서 전향한 의사 애인의 배신으로 실성한 영실이 따라가야 할 사람으로 부른 사람도 오빠이다. 『마약』에서도 마약을 사기 위해 자신을 중국인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안 부인이 탈출하여 따라간 사람도 전향한 사회주의자 남편이고, 『어머니와 딸』에서는 남편의 배신으로 괴로워하던 옥이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와 같이 갈 길로 떠올린 사람이 친구 오빠이다. 이처럼 강경애 소설은 여성인물들이 오빠와 남편, 아들을 믿고 따라가야 할 존재로 상징하는데 여성은 남성이 비록 죽거나 절망 속에서 피폐해져 있을지라도 동지라는 결속으로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계급적 연대에 대한 믿음과 이념적 결속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따라감’은 분명 문제적이다.

여성이 독립적이지 않은, 의존적 존재로 나타나는데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희생이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높인다. 『마약』에서 절망한 사회주의자 남편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파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도 부인은 남편을 전혀 원망하거나 그의 행위를 비판하지 않는다. 남편을 그렇게 만든 현실의 모순을 원망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하여 남편을 찾아간다. 남편의 무책임과 방종에 대한, 계급모

순과는 다른 차원의 비판적 인식이 나타날 수 있는 예민한 지점이지만, 응당 있을 법한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일반의 여성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은 당대 사회주의자 여성운동의 의식과 견주어 볼 때도 아쉬운 수준임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자에 대한 검속과 구금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20년대 중반 이후 투옥과 망명한 남성 사회주의자 아내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아내에 대해 동지로서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며 정조를 여성의 미덕으로 강조하는 것에 반해 허정숙 정철성, 유영준 등의 여성사회주의자들은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생활고의 경제문제와 성적 본능의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사회주의 여성들이 여성의 성과 육체의 문제를 자유주의 여성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쟁점화하지는 않았지만¹⁵⁾, 동지로서의 신의와 보수적 정조 관념을 강조하는 남성 사회주의자와는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성과 육체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또 남성과 다른 여성의 불리한 경제적 위치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사회주의 여성들의 주장에 비해 강경애가 『마약』

15) 당시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성의 해방, 결혼 및 이혼의 자유, 정조와 순결에 대한 부정, 여성의 경제적 독립 등의 쟁점에서 콜론타이의 주장에 공감하지만 계급 문제나 사회변혁의 이념에서 자유주의 여성과는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선적 과제로 쟁점화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정철성, 주세죽, 허정숙 등은 성과 사랑에 있어 급진주의 여성과 다르지 않은 자유로움을 보여주었고 이들의 삶은 은밀한 방식으로 소문을 통해 더 깊고 긴밀하게 젠더 억압 담론으로 구성되어 전파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경일, 앞의 책, 189-213쪽; 조선희, 『세여자』, 한겨레출판사, 2017 참조.

16) 이 문제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삼천리』1930년 11월 특집 기사인 「남편 在獄·亡命 중 처의 수절 문제」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허정숙의 두 번째 연인인 송봉우는 여성 사회주의자에게 “동지로서 사랑과 믿음이 병행하는 여성”으로서의 미덕을 강조하며 남편이 오랜 동안 떠나 있더라도 여성은 “어디까지든지 정조를 엄수”해야 하며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여성을 “인격의 공지와 수양이 없”는 “遊女型的 아내”로 단죄한다. 반면 허정숙은 조선 여성이 처한 현실에 주목하며 교양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조선의 여성은 남편의 망명이나 철창 생활에서 호구난에 몰려 개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등에서 강조하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신의와 추종은 남성사회주의자들의 시각에 편향돼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미약중독자인 남편이 아내를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상황에서조차 신의를 내세우며 남편을 오히려 이해하고 따라가는 아내의 모습에서, 그리고 그것을 ‘동지’의 길로 제시하는 데서, 동지가 평등의 이념보다 억압적 당위로 여성에게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워지고 계급적 당위가 맹목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계급 해방과 여성해방을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당대 사회주의 여성 지식인과 강경애가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여 주지만 사회주의 여성 지식인에게 나타나는 여성적 자의식이나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경애의 여성의식이 그들보다 후퇴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원고료 이백원』에는 동지를 위해 아내의 일상적 욕망마저 억압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원고료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은¹⁷⁾ 아내가 후배 K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으로 지식인 여성의 삶의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있는 계몽성이 강한 소설이다. 아내는 자신의 소설 원고료로 받은 이백원으로 그동안 갖고 싶었던 신발과 양산 등 개인적으로

고 말하고 아울러 운동선상의 남편을 가진 아내는 흔히 청춘 시기인 만큼 “본능에 대한 허위 생활을 거절하는 일”이 실제로 매우 많다고 말한다. 정철성 역시 “주의자도 인간이고 사상가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춘추의 계절 따라 젊은 몸을 휩쓸고 도는 그 생리적 욕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인생의 본능인 성욕을 무제한하고 참으라 함은 과부에게 정조를 강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유영준 역시 장기형을 받거나 망명한 남편의 아내가 “아무리 동지도덕과 의리가 깊다 하더라도 청춘이 백발이 될 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남편이 감옥에 있거나 망명해 있는동안 그 사이의 생리 욕구를 참지 못하여 다른 남자와 관계한다 해도 그러한 일은 “소극적으로 한 과격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말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여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계급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하는 것을 피했을 뿐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남편 在獄·亡命 중 처의 수절 문제』, 『삼천리』 제10호, 1930년 11월) 김경일, 앞의 책에서 재인용, 189-225쪽.

17) 1935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강경애가 1934년 8월부터 12월까지 『동아일보』에 『인간문제』를 연재하고 받은 원고료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필요한 것을 사려고 하지만 남편은 동지와 그 가족을 위해 써야 한다며 아내를 방탕한 모던걸로 몰아붙인다. 남편은 아내의 뺨을 때리며 “너도 요새 소위 모던걸이라는 두리훤등년이 되고 싶은 게로구나”(89쪽)하고 그녀의 소소한 일상의 욕망을 방탕한 타락으로 몰아붙인다. 헤어진 구두 대신 새 구두를 사겠다는 당연한 욕구마저 ‘머리를 지지고 볏고, 상판에 밀가루 칠을 하구, 금시계에 금강석 반지에 털외투를 입는’ 사치와 방탕으로 호도되는 데서 모던걸 담론의 공포와 억압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비난을 “아! 무산자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문인”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것이 자유주의 여성주의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에게까지 즉, 전체 지식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은 ‘남편의 동지이면 아내의 동지’와 같으며 아내가 반성 후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지식인 여성이 가져야 할 윤리적 삶의 태도로 제시한다. 여기서 사회주의 지식인 여성의 ‘동지되기’가 욕망에 대한 심문과 억압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남성과의 실질적 평등보다 여성의 욕망을 억압하고 미완의 결핍을 환기하는 수사임을 알 수 있다. 외연적으로 공동체적 결속과 평등의 이상을 지향하지만 여성에게는 추종과 희생은 강요하는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지식인 남성에게는 동지가 ‘주의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명이지만 여성에게는 ‘특정한 조건에서 자격이 부여되는’, 그러한 점에서 억압과 불균형을 내포한 성차별적 수사임을 알 수 있다.

4. ‘과잉’ 혹은 ‘결핍’으로 남은 여성

아래 그림은 모던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1928년 안석주가 『조선일보』에 <모던걸의 장신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실은 만화이다.¹⁸⁾ 단

18) 신명직, 『모던 뽀이, 경성을 거닐다-만문만화로 보는 근대의 얼굴』, 현실문화연구, 2003, 76쪽.

발과 스타킹, 짧은 통치마와 더불어 황금팔뚝시계와 보석반지로 사치스러움을 과장되게 보여주고 있다. 모던걸로 비하된 신여성이 더 이상 근대적 교육의 계몽 주체가 아닌 사치와 방탕에 물든 계몽의 대상으로 추락했음을 보여준다. 지식인 여성의 교육과 지식은 내용과 실천이 없는 겉치레뿐인 껍데기로 비하되고 육체는 성적 욕망으로 가득찬 팜프 파탈의 이미지로 희화화되고 있다.



이는 비단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등의 자유주의 여성에게만 아니라 사회주의 여성 지식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회주의 남성들의 검거, 투옥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사회주의 여성들도 분방한 연애 담론을 통해 ‘맑스 걸’, ‘레닌 레이디’로 불렸고, ‘붉은 연애’의 주인공으로 조롱되었다. 신여성이 주장하는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성적 자율성과 욕망은 식민지 현실을 ‘초과하는’, 허황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지식인 여성의 교육과 활동은 ‘겉껍데기’, 내용 없이 화려한 포장, 실천 없는 구호 등의 모멸적 수사로 비하되었다. 여성의 존재와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터무니없이 ‘과잉’한 것이거나 필요한 내용을 채우지 못한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 여성, 특히 의식있는 ‘주의자 여성’으로서의 사회주의 지식인 여성은 모던걸이 아님을 스스로 심문하고 증명하면서 그것과 다른 정체성을 추구해야 했다. 허정숙, 주세죽, 정철성 등의 사회

주의 여성들의 사생활은 은밀하게 혹은 공공연하게 소문으로 구성되어 ‘나쁜 행실’로 회자되었고 사회주의 여성의 육체와 성 역시 자유주의 여성들과 다른 차원에서 규율되어야 할 위험한 대상으로 공격되었다. 지식인 여성이었던 강경애는 ‘나쁜’ 사회주의 여성지식인과 다른 ‘선긋기’를 해야 했고 그들과 다름을 증빙하기 위해 모던걸로 지명된 지식인 여성성을 구축(驅逐)해야 했다. 지식인 여성으로서 자신도 비난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면화되면서 그들과 다른, 오히려 그들을 타자화하는 시선을 내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공포의 대상을 밖으로 내쫓고 비난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인 여성을 ‘과잉’과 ‘결핍’의 기호로 비판하는 강경애의 시각은 이러한 공포가 낳은, 그 이면에 공존하는 혐오가 작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혐오는 대상이 자기를 해치거나 위협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유발된 공격적 감정으로¹⁹⁾ 지식인 여성에 대한 강경애의 공격은 공포와 결합된 혐오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²⁰⁾ 강경애는 방탕하고 허례적 지식으로 비판받는 지식인 여성이 되지 않기

19) 유서연, 『공포의 철학: 타자가 지옥이 된 시대를 살다』, 동녘, 2017, 34-64쪽.

20) 강경애가 지식인 여성에 대한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 배경에 그녀의 개인적 상황도 일정하게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강경애는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 일곱 살에 장연으로 이주하였고 평양 승의여학교 재학 중 스트라이크 주동자로 중퇴한 뒤 양주동을 따라 서울로 올라와 그와 동거한다. 동덕여학교에서 공부하였으나 1년 뒤 그와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온 뒤 후원자였던 형부로부터 심한 질책과 비난을 받는다. 그 후 결혼한 상태의 장하일과 만나 간도에서 살림을 차리고 함께 하는데 장하일이 정식으로 이혼 후 재혼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다. 이러한 강경애의 연애와 결혼 행로에 나타난 개인적 체험은 자신도 모던걸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자책과 두려움의 민감성을 높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강경애와 장하일의 관계는 명목상 ‘동지’로 나타날 뿐 일방적으로 강경애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비대칭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경애는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가사일에 매달리며 창작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인적 체험으로 인해 모던걸 담론의 공포가 강경애에게 더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경애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이상경과 서정자의 연구를 참고했다. (이상경, 앞의 책, 13-72쪽; 서정자, 『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 『인간문제(외)』, 범우, 2005, 527-554쪽.)

위해 진력해야 했고 또 그것을 증빙해야 했던 것으로, 사회주의 여성 내부를 다시 ‘나쁜’ 지식인 여성과 ‘진정한’ 사회주의 지식인 여성으로 나누고 자신은 ‘진정한’ 지식인 여성에 세우는 인정 투쟁에 개입하면서 지식인 여성의 자율성을 내몰게 된 것이다.

강경애 여성의식은 이처럼 모던걸 담론의 공포가 내면화된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에 속에서 구성되었고 『인간문제』에 제시되는 구여성과 가사일에 대한 강조는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과 곤경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강경애는 작품에서 전통적 여성과 가사일을 옹호하며 신여성을 모던걸로 비하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 여성은 연애에만 몰두하는 사치와 방탕에 빠진 팜므 파탈의 여성으로 재현되고 구여성과 가사일이 긍정적으로 수용된다. 가사일은 ‘노동’의 의미로 계급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재소환되지만 가사일에 결부된 여성억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안팎 경계의 가부장적 차별을 넘어서지 못한다. 희고 깨끗한 빨래, 바느질과 음식하기 등의 가사일을 통해 재현된 하층민 여성의 긍정적 자질은 오히려 이념이라는 명분으로 당위적으로 강요됨으로써 여성 억압을 가중시킬 위험마저 보여준다. 따라서 구여성 세계와 가사일을 가부장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적 단서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자본주의적 모순을 균열시키는 사적영역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이다. 강경애 여성의식을 해명하는 데 있어 예민한 지점이자 딜레마인 가사일과 구여성에 대한 묘사는 모던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이 개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온당하다. 모던걸 담론의 공포가 사회주의 여성의식 안에 개입됨으로써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계급주의 이념과 전근대적인 가부장적 이념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강경애 여성의식 내부에 중층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써 사회주의의 단일 이념으로 강경애 소설의 여성의식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주의 이념으로 해명되지 않는 모순적 갈등은 ‘동지’의 호명에서도 확인된다. 동지는 사회주의이념의 계급적 정체성과 이상적 관계를 지칭

하는 호명으로 외연상 평등함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여성이 동지가 되는 길은 남성 즉, 오빠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회의없이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평등함의 이상은 훼손되고 여성은 결핍과 미완의 존재로 남겨진다. 심지어 남성과 동지가 되기 위해 여성의 성과 육체가 억압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결국 동지가 위계적, 성차별적 모순을 내포한 수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경애의 여성의식은 당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의식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도 아쉬운 것으로 남성과 동등한 성적 자율성을 주장하고 여성 고유의 경제적 고충을 강변하며 여성의 목소리를 냈던 당대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보다 강경애의 여성의식은 보다 위축되고 억압적임을 보여준다.

일체의 가열한 펄박을 몸으로 체험하며 사회주의 전선의 선봉에서 각고에 찬 하층민 여성의 현실을 치열하게 서사화했던 강경애 소설은 체험의 진정성과 꺾이지 않는 의식의 강고함으로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소설의 중요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여성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이념의 선진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없는 여성의식의 결여가 발견된다. 사회주의의 남성중심성을 내면화한 것으로 그것의 성과를 모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데올로기 내부의 성차별적 시선과 비판적 거리를 갖지 못함으로써 젠더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성의 차이와 정체성을 당당히 내세우지 못했고 당대 사회주의 여성들의 의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나타난다. 지식인 여성에게 향했던 무시와 차별이 두려움으로 내면화되면서 비난 받는 여성과 스스로를 구분하고 그들과 다른, 곧 그들을 남성의 시선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것으로, 사회주의 평등의 이념을 내세운 ‘동지’에 내포된 여성 희생적 의미는 이에 대한 단적인 예이다. 식민지 시기 신여성 담론이 가한 지식인 여성에 대한 부당한 편견은 자유주의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여성 작가에게도 예외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강경애, 『인간문제(외)』, 범우, 2005.

2. 단행본

김수진, 『‘모던걸’, 모방의 병리적 주체』,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103-472쪽.

이상경, 『강경애 - 문학에서의 성과 계급』,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7, 13-152쪽.

유서연, 『공포의 철학: 타자가 지옥이 된 시대를 살다』, 동녘, 2017, 5-233쪽.

3. 논문

김경일, 『사회주의 여성의 성과 사랑』,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131-225쪽.

김민정,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지배담론의 영향과 여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문학』 제85호, 한국어문학회, 2004, 315-337쪽.

김복순, 『강경애의 ‘프로-여성적 플롯’의 특징』,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311-334쪽.

김양선, 『강경애 후기 소설과 체험의 윤리학:이산과 모성 체험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196-220쪽.

박혜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제23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250-276쪽.

배상미, 『식민지시기 무산계급 여성들의 사적영역과 사회변혁-강경애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44호, 상허학회, 2005, 355-400쪽.

서정자, 『페미니스트 성장소설과 자기발견의 체험: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 ‘인간문제’ ‘소금’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7호, 한국여성학회, 1991, 44-75쪽.

- _____, 『체험의 소설화, 강경애의 글쓰기 방식』, 『인간문제(외)』, 범우, 2005, 527-549쪽.
- 송명희, 『강경애의 ‘인간문제’에 대한 여성비평적 연구』, 『비평문학』 제11호, 한국비평문학회, 1997, 224-248쪽.
- 임선애, 『여성작가와 사회주의-강경애의 경우』, 『현대사상』 제5호, 대구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 2009, 115-135쪽.
- 정미숙, 『차용된 남성 시점과 여성 발견의 한계-강경애 단편소설의 시점』, 『문창어문논집』 제23호, 문창어문학회, 1999, 337-360쪽.

Abstract

The Fear of ‘Modern Girl’ and the Rhetoric of Comrades : A Review of Socialist Female Consciousness in [Human problem] by Kang Kyeong-ae.

Song, In-hwa

The works of Kang Kyeong ae, which were recognized as the best realistic works during the colonized period, female consciousness was approached in terms of realizing the socialist ideology. The existing studied said that the sense of socialistic woman’s liberation was realized well, or that the man oriented-socialist ideology was accepted without criticism so that a sense of the patriarchal was appeared on the whole, These studies were not different in that they explained consciousness of women with socialist ideology even being different direction of evaluation. They regarded the socialist ideology as a ideology of single content and linked its weak point and its virtue to success and failure of consciousness of women. However that of Kang Kyeong ae’s works was not a single ideology without seam. Rather than, the contradicted difference was structured in socialism. In that, the old fashioned patriarchal view intersected with the ideology of modern class liberation, in the same socialistic area, there was the difference between feminists as well.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heterogeneity and the disparity which was overlooked in the study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derngirl discourse. The self-consciousness of New women or Moderngirl discourse that

depreciated intellectual women with debauchery, vanity, and empty shells was regarded as the main cause of such oppression and contradiction. As the fear of 'modern girl' became internalized in the intellectual women, it pursued the identity of woman who is opposite to it. It can be seen that the discourse of the Newwomen caused oppressiv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not only to liberal feminists but also to the socialist women's consciousness through the discussions of the colonialism as 'red romance'.

Key words : Kang Kyung Ae, Socialism, Intellectual woman, 'Modern girl', 'New women', Fear, Patriarchism, Heterogeneity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